

## KIAT, K-걸스데이 발대

박병립 기자 riby@dt.co.kr | 입력: 2016-04-29 14:48



29일 열린 K-걸스데이 발대식에서 여학생, 여대생, 멘토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<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공>
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은 29일 더 K 호텔에서 여학생 기술현장 체험행사인 'K-걸스데이'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.

K-걸스데이는 여학생을 미래 산업기술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각지 120여개 산업기술현장을 체험하는 행사로 내달 19일 진행한다. 또 이날 정희선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, 김희 포스코 기술연구원 그룹장, 윤채옥 한양대 생명공학과 교수, 이도희 바이시클 대표, 신정원 한국센서 대표, 이소영 시현코리아 대표 등 6명의 여성리드를 대표 멘토로 위촉했다.

여대생 서포터즈 30명도 임명했으며 이들은 멘토들과 함께 여중·고생의 조언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.

정재훈 KIAT 원장은 "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명 이상의 이공계 인재가 배출되지만 실제 현장으로 진출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18.9%에 불과하다"며 "K 걸스데이 행사를 통해 여학생들이 이공계 진학과 산업계 진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박병립기자 riby@dt.co.kr

